

□ 추진배경 및 필요성

- 학교복합시설은 학교 또는 폐교에 학교와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도록 조성하는 시설임. 교육부 2026년 9월 자료에 따르면 현재 209개소가 운영 중이고 114개소가 개관을 준비 중임
- 교육부는 학교복합시설이 도시를 넘어 농산어촌과 인구감소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많은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적 효율성과 소외지역의 접근성을 보완하는 공간적 형평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음
- 그러나 단순히 인구가 많은 곳만 고르면 읍면지역의 서비스 공백을 놓칠 수 있고, 반대로 취약성만 보면 실제 이용수요와 운영 지속성을 놓칠 수 있음
- 이에 세종시의 동지역 4개교(아름중·도담중·참샘초·고운초), 읍지역 1개교(조치원중), 면지역 2개교(전의중·부강초)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음. 이는 공식 사업후보지가 아니라 SGIS 활용방법을 검증하기 위한 사례대상임
- 분석 구조는 ①수요 학교 중심 1·2·3KM 인구·주민 구조, ②빈자리 읍면동 생활 SOC(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) 공급여건, ③처방 지역유형별 맞춤 기능
- SGIS 활용서비스

서비스	확인한 자료	역할
생활권역 통계지도	학교중심 1·2·3KM 연령·가구	실제 이용수요 파악
살고싶은 우리 동네	문화·체육·유치원 및 보육·사회복지· 노인복지시설	생활 soc 공급여건 파악
대화형 통계 지도	2024년 읍·면·동 총인구	시설 수를 인구 규모로 보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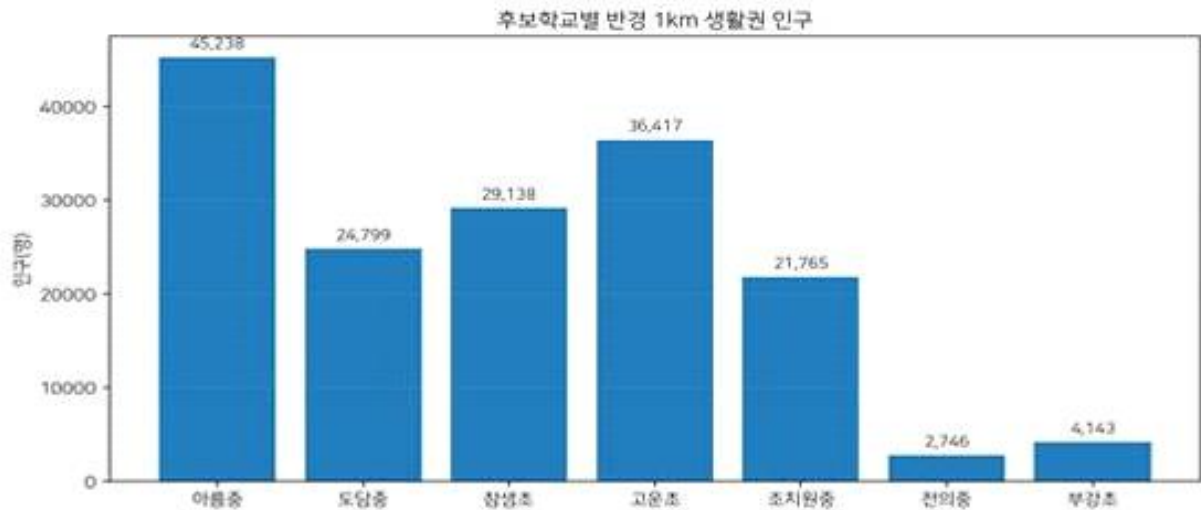
□ 추진과정

○ 1단계: 학교 중심 생활권의 수요를 확인

- 생활권역 통계지도에서 7개 학교를 중심으로 지정하고, 모든 학교에 동일하게 1·2·3km 반경을 적용함. 1km는 핵심생활권, 2·3km는 범위를 넓혔을 때 결과가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하는 보조범위로 사용함. 이 반경을 법정 기준이 아니며 후보 간 동일 비교를 위한 기준임

- 1km에서는 총인구와 함께 0 ~ 19세, 60세 이상, 1인 가구 비율을 산출하여 지역의 주민구조를 확인하였음

「그림 1 후보 학교별 반경 1km 생활권 인구(SGIS 2024년)」



○ 2단계: 읍·면·동 생활 SOC의 절대수 확인

- 살고싶은 우리동네의 지표 지도에서 동일한 2024년 기준으로 문화시설, 체육시설, 유치원 및 보육시설, 사회복지시설, 노인복지시설 수를 확인하였음

- 시설의 절대 수만 비교하면 인구가 큰 조치원읍과 인구가 작은 전의·부강면을 공정하게 비교하기 어려움

○ 3단계: 시설 수를 같은 행정구역 인구로 보정

- 인구 1만 명당 시설 수=해당 읍면동 시설 수÷해당 읍면동 총 인구×10,000으로 계산하였음 이때 분자와 분모의 공간범위를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 대화형 통계지도의 읍면동 총인구를 사용하였음

- 학교 중심 1km 인구와 읍면동 시설 수를 직접 나누는 방식은 공간단위가 달라 사용하지 않았음

□ 분석결과

○ 7개 후보는 많이 필요한 곳과 상대적으로 비어 있는 기능이 서로 다름. 따라서 단일 순위보다 유형별 우선검토가 더 적절함

학교	1km 인구	0-19세	60세 이상	1인 가구	주요 공급특징(1만명당)	해석
아름중	45,238	29.4%	11.7%	17.7%	전반 중간 이상	고수요 · 공급양호
도담중	24,799	24.1%	14.9%	33.4%	문화 0.85(최저) 체육 6.38	문화 · 체육 보완
참샘초	29,138	26.8%	12.3%	26.1%	체육 4.71 사회복지 9.42(최저)	도시형 우선검토
고운초	36,417	27.4%	13.4%	26.0%	문화 2.33 보육 9.89	고수요 · 부분보완
조원중	21,765	18.4%	24.2%	32.1%	체육 13.35 사회복지 19.49 노인 1.27	기존거점 · 선별보완
전의중	2,746	9.5%	37.9%	41.7%	문화 1.72 노인복지 3.44(최고)	형평성 · 문화접근 보완
부강초	4,143	9.8%	29.8%	55.9%	노인복지 0 사회복지 24.1 체육 15.49	읍면형 우선 검토

○ 첫번째 핵심발견: 동지역은 이용수요가 커도 공급여건이 다름

- 아름중은 1km 인구가 45,238명으로 가장 크고 0~19세 비율도 29.4%로 가장 높지만, 인구보정 생활SOC는 전반적으로 중간 이상. 따라서 ‘인구가 가장 많다’는 이유만으로 우선대상이 되지는 않음

- 참샘초 · 한솔동은 1km 인구 29,138명과 0~19세 26.8%의 높은 수요가 있으면서, 체육시설 4.71개/1만명과 사회복지시설 9.42개/1만명이 비교 7곳 중 모두 가장 낮음

○ 두번째 핵심발견: 읍면지역은 취약인구 비율과 기능별 공백을 함께 봐야 함

- 전의면은 60세 이상 37.9%, 1인가구 41.7%로 취약성이 높지만 노인복지시설은 3.44개/1만명으로 비교지역 중 가장 높았음 따라서 고령층 비율만으로 ‘복지 부족’이라 단정할 수 없었음

- 부강면은 60세 이상 29.8%, 1인가구 55.9%로 높는데 노인복지시설이 0개였음 반면 체육·사회복지는 인구보정 공급량이 높아, ‘복지 전체’가 아니라 ‘고령친화 기능’의 공백이 핵심으로 나타났음

□ 최종 도출: 한 개의 1등이 아니라 두 개의 우선 유형

도시형 우선검토	참샘초등학교/한솔동
근거	1km 인구 29,138명, 0~19세 26.8%로 이용수요가 크고, 체육시설 4.71개/1만명과 사회복지시설 9.42개/1만명이 비교 7곳 중 각각 가장 낮음

○ 맞춤기능: 생활체육·주민복지·평생학습을 결합한 복합공간. 아동 중심 지역이지만 유치원·보육시설 공급은 특별히 낮지 않으므로, 보육시설을 단순 추가하기보다 학생과 주민이 함께 쓰는 체육·복지·학습 기능을 우선 검토함

도시형 우선검토	부강초등학교/부강면
근거	1km 인구는 4,143명으로 작지만 60세 이상 29.8%, 1인가구 55.9%로 높고 노인복지시설은 0개. 사회복지·체육 공급은 높은 편이어서 고령친화 기능의 구체적 공백이 확인됨

○ 맞춤기능: 고령친화 건강·가벼운 운동·평생학습·상담을 묶은 소규모 복합기능. 학생 교육공간과 주민 이용 동선을 분리하고, 기존 사회복지 서비스와 연계해 중복투자를 피하는 방식이 적절함

□ 그 밖의 후보는 왜 후순위인지

- 도담중은 문화시설 0.85개/1만명으로 비교지역 중 가장 낮아 문화·체육 보완형 후보이나, 전체 생활SOC 공백이 참샘초처럼 복합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음
- 고운초는 수요가 크지만 보육·사회복지 공급이 비교적 양호하여 우선도보다 기존 시설과의 연계가 중요함
- 조치원중은 고령·1인가구 비중이 높지만 체육·사회복지·노인복지 공급이 비교지역 중 높은 편으로, 신규 대형시설보다 기능 선별이 합리적임
- 전의중은 고령·1인가구 비중이 가장 높지만 노인복지·사회복지 공급도 높아 ‘고령화=복지시설 부족’이라는 단순 결론을 피할 수 있었음 대신 문화시설 1.72개/1만명의 낮은 수준을 고려한 소규모 문화·평생학습 보완이 적절함

「그림 2 생활권 수요(참샘초)와 생활SOC 공급 공백(부강면 노인복지시설 0개)의 실제 SGIS 화면」



□ 정책 적용 및 확산가능성

○ 「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5조는 지자체장과 감독기관의 동의·요청 또는 협의를 통한 설치 근거를 두고 있으며, 제6조는 학생·학부모·교직원·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함께 정상적인 교육활동과 학교운영이 침해되지 않도록 규정함

○ 따라서 최종 사업대상 자동선정이 아니라 ①SGIS 사전진단, ②현장조사, ③학생안전·교육활동, ④부지·재정, ⑤학교·주민 의견수렴의 첫 단계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함

○ 별도의 유료 GIS 프로그램 없이 SGIS 공개서비스 3종만으로 반복할 수 있어 다른 교육청·지자체가 그대로 벤치마킹할 수 있음. 학교복합시설 외에도 도서관·체육·복지·돌봄시설의 후보지 비교에 적용 가능함

□ 해외 공식 사례와의 비교

국가 및 사례	공식자료 핵심	이번 사례 반영 내용
미국 교육부	학교가 교육·사회·건강서비스를 연계하고 각 지역의 필요에 맞게 서비스를 구성	지역별 수요에 따라 기능을 달리하는 원칙
일본 문부과학성	학교와 도서관·보건·육아원·행정·개호요양 등을 한 거점에 복합화	학교를 지역 생활거점으로 보되 기능 중복을 피함
EU ESF, Local Education Hubs	학교·지역단체가 지역 교육수요에 공동 대응하는 거버넌스	데이터 진단 후 지역협력으로 실행하는 구조

□ 추진성과

- 실제 SGIS 데이터를 이용해 세종시 동·읍·면 7개 사례를 동일 기준으로 분석하고, 35개 생활SOC 시설값과 7개 읍면동 총인구를 검증하였음
- 시설 절대 수를 같은 읍면동 인구로 보정하여 ‘인구가 큰 지역이 시설도 많아 보이는 문제’를 줄였고, 학교생활권 수요와 공급을 공간단위가 다른 상태로 직접 나누는 오류도 피함
- 최종적으로 도시형 우선검토(참샘초·한솔동)와 읍면형 우선검토(부강초·부강면)를 구분하여,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음